



8·15 後의 齒科界 發展相

金 永 昌

- ◇..... 이 글은 현재 조선대치대 학장으로 계시는 김영창박사께서 서울치.....◇
- ◇.....에 학장당시인 1958년 8월 “보건문화 제 1 권 제 5 호”에 게재되었던.....◇
- ◇.....8.15전후의 치과의학계의 생생한 기록을 대한치과의학회 연구회지.....◇
- ◇.....제 1 호(1960.2.1 발행 발행인 이한수)에 전제한다 있다. 이제 우리.....◇
- ◇.....는 그 당시의 상황을 되새겨 치과의학 발전에 적지 않는 참고가 될.....◇
- ◇.....것으로 믿고 이 글을 다시 소개하는 바이다. <편집자 주>◇

舊韓國 말엽에 수입한 西歐文明의 선봉은 宣教師가 傳導하는 기독교 복음과 더불어 들어온 洋醫學이였으며 다른 西歐的 정신科學文明에 으뜸하며 개척된 것이었으나 齒醫學의 초창기는 이에 훨씬 뒤떨어져 1922年頃 當時總督附病院의 齒科科長으로 있던 柳樂氏가 現齒科大學의 전신인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를 창설함으로써 비로서 시작되었다.

이에 前後하여 個人으로 齒科醫院을 開業 美人 및 日本人들의 齒科醫師가 있었으나 그들의 活動은 다만 극히 국한된 개인적인 것이어서 云謂할바가 못되는 바이다.

그後 우리 齒科異의 元老이신 威泰錫先生께서 東京齒專을 卒業하고 齒科醫로서 개업하여 한국인 齒科醫師의 嚆矢가 되었던 것이다.

京城齒專은 原來가 日本人의 재단으로 日本人 教授에 依하여 창립되었던만큼 어디까지나 당시 한국에 居留하는 日人子弟를 위한 齒科교육을 主 목적으로 하여 한국인 학

생은 全학생의 불과 몇分之 一에 지나지 않았었다. 지배적 위치에 君臨하는 日人 학생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온갖 受侮와 굴욕을 감수하면서 공부해야만 했던 한국인 학생들이 걸어온 길은 文字 그대로 형극의 길이었던 것이다.

「지금 주권을 회복한 독립국가의 학생으로서 학원의 자유가 보장된 분위기 속에서 면학하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선배가 겪어온 고통을 상상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다」리고 생각되리만큼 허다한 國難과 불가피하게 봉착하는 에로를 극복하여야만 하는 學究生活 가운데 학문의 탐구에 專力하는 동시에 적들에 대한 유행무형의 항쟁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듯 역경과 싸우면서 수업한 年후에는 거의 배다수가 다만 습득한 臨床기술을 응용하는 齒科開業醫로서 비교적 안이한 생업을 택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學究에 정진하고자 하는 자는 극소수에 한하였던

것이다. 학문을 향하여 돌아나는 어진 싹조차 무참히도 짓밟아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일제의 강압과 전쟁말기의 발악은 학구에 불타는 청년들로 하여금 그 의기를 沮喪케하고 무기력한 저항을 포기하게 하는데 충분하였던 것이었다.

齒醫學의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기관으로서 京城齒科醫學會 및 朝鮮齒科醫學會가 兩立하여 서로 경쟁하면서 일본으로부터 강사를 초빙하여 오는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日인들이 주도하였던만큼 한국인으로서는 오히려 제3자적 견지에서 양파의 대결을 관망하는 형편에서 魚夫之利라고 할 수 있는 약간의 수확을 꾀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을 수 없었다.

太平洋戰爭의 말기에는 경제의 극심한 변동으로 그나마 여의치 못하여 이러한 학술활동은 정돈상태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해방전 우리 한인이 발표한 것

으로서의 朴明鎭, 襄珍極, 兩博士의 학위論文을 제외하고 광복할만한 업적을 찾아 보기 힘든 것이다.

한편 한국인 칫과의사들이 조직한 漢城齒科醫師會가 칫목기관으로 운영되면서 구강위생계몽운동, 임상파담회개최, 회원상호간의 학술연구발표등 독자적인 활동을 지속했으나 일본관헌들의 감시 압력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의사회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마침내 1940년경 聯合齒科醫師會라는 명칭하에 강제적으로 日人齒科醫師會에 併合되고 말았으며 二次大戰이 절정에 이르자 칫과의사회원 또한 救護隊로 강제 훈련에 동원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물론이요 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완전한 자주독립을 기약한 8.15의 해방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이제야말로 누구를 거러거나 하등의 박해나 속박이 없이 다만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발전만이 기대 되는 것이다.

1950년에 유발한 적구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한국 역사상 未曾有의 民族戰을 당하여 戰禍로 인한 파괴와 혼란이 발전을 지향하는 모든 활동을 阻害하였을 지라도 한국 齒科教育界 및 齒醫學界 全般의 樣相은 8.15이래 현저한 발전의 발자취를 보여 왔다.

齒科教育界에 있어서는 칫계로 教育制度의 변경 즉 齒科醫學 教育 年限 延長의 一大變革이 단행 되었다.

現 齒科大學이 8.15 해방과 동시에 일인으로부터 인수되어 大學으로 조직개편 되었고 그 다음해부터인 1946년에는 서울大學校設置會에 의거하여 다시 이어 폐일됨에 그 면목을 일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大學으로서의 기구와 시설이 마비한 당시 혼란한 過渡期에 있었던 만큼 學制의 변경은 시기상조라는 견지에서 齒醫豫科 설치 또는 教育

年限 延長등의 안은 하등고려 되지 않았던 것이다. 비록 학제는 의연히 일제시의 제도를 답습한 것이었으나 그 敎科內容의 쇄신을 기하기에 경주되었으며 특히 太平洋戰爭期에 다년간 두절되었던 歐美諸國의 敎育이 용이하게 되어 美國齒末科醫學教育의 發展樣相과 그 변모를 파악하게 됨에 따라 점차로 美國式 齒科醫學教育을 지향하는 기운이 농후하여지고 이를 재빠르게 敎科編成에서 感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敎科豫定表에는 일반 敎養科目이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특히 6.25 동란이후 피란시대로부터는 一般基礎醫學課程의 시간수가 급격히 증가되는 동시에 入學初의 一年은 전적으로 일반교양과정에 충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한 기구 시설을 갖춘 선진국가에서도 6年乃至 8年을 소요하는 齒科醫學教育을 3分之2에 不過하는 4年間에 압축하여 보려는 試圖 자체가 무리한 것이므로 4年으로 제한된 年間에 6年의 과업을 수행시키고자 함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自명한 것이다.

그리하여 현행 4年制 齒科醫學教育에 대한 再檢討 및 시정이 數年來 가장 긴질하고 시급한 문제로서 대두하게 되고 드디어 금년초에 공포된 大統領令가운데 齒科醫學教育 年限 改正令이 挿入됨으로서 대망의 6年制敎育이 실시되어 지난 4月에는 齒醫豫科生の 신입을 보게 되었다. 이로써 새로운 教育制度의 견고한 기반위에 確定된 齒科教育의 역사는 마침내 新紀元을 맞이하고 보다 高次的 발전의 第二段階로 돌입하게 된 것이다.

둘째로 齒科教育에 관계하는 敎育者들의 海外留學이 빈번해져 가고 있는 반가운 현상이 敎育의 發展을 證左하고 있음을 들겠다. 6.25 동란이후 유·엔이 한국에 증여하는 각종 원조계획을 통하여 치과대

학이 입은 물질적 원조도 多大하거나 技術援助計劃에 의거한 요련의 해석은 이에 못지 않게 意義있는 것이다. 數多한 敎授가 韓美財團 I.C.A. 資金등으로 世界最高의 수준을 堅持하는 美國의 最新臨床 技術을 습득하고 선진하는 學術理論을 探究하여 歸國한 後 學生지도에 十分 활용하고 있으며 한편 財政的 困難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自費로써 歐美各國에 유학한 교수들도 있는바 이렇듯 學問과 敎育에 바치는 정열의 敎育發展의 原動力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齒科齒學界에 있어서는 해방과 더불어 한국 칫과의사를 총망라한 大韓齒科醫師會가 조직되고 그 傘下에 大韓齒科醫學會도 동시에 발족하였다. 과거 日帝時의 醫師會는 본연의 활동기능보다는 오히려 齒科醫師 상호간의 친목을 위주로 하는 모임에 불과했으나 이제 그 舊態에서 벗어나 점차로 능동적이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美國齒科醫師會와 같이 保健事業, 齒科醫師登錄事務一切등 齒科事業 전반에 걸쳐 주도권을 장악하고 行政代行機關으로서의 기능을 구비할수 있는 것으로 발전시키고자 試圖하여 왔다.

매년 六月九일에 시작하는 口腔 保健週間을 통하여 각급학생의 口腔 檢診 및 無料檢診, 健齒老人表彰 등 口腔위생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를 강조하는 계몽사업에 全會員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年中行事로 되어있는 無醫村 순회를 해마다 어김없이 실천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봉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질적향상에도 부단한 노력을 注入하여 大韓齒科醫學會에서는 매년 初夏에 學術大會를 개최하고 지난 一年間의 學術研究發表, 臨床報告, 一블블리닉, 베 몬스트레이숀등과 아울러 국내의에서 생산사용되고 있는 齒科材料 및

器材의 전시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대회가 年年 성황을 거둬주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美國齒科醫師會도 多數 贊助出演하여 前例없는 일대 성황을 이루었던 것이다.

끝으로 우리 齒科醫師會가 국제 무대 진출의 현저한 발전의 一例를 들겠다. 國際保健機構의 아시아地區會에서 개최한 一次의 齒保健會議에 우리代表가 빠지지 않고 參席의 기회를 가졌고, 1975년 3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第二次아시아地區齒科會議에는 大舉 五名の 代表가

파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國際的 進出은 8.15 해방이후 비로서 試圖된 것으로 이 또한 齒醫學發展을 誇示하는 活躍相의 하나라 하겠다.

世界史의 조류와 더불어 흐르는 한국의 現世史로 구비쳐야 할 허다한 파란의 여울을 거쳐왔으며 따라서 물밀듯 거센 西歐文明思潮의 流入과 함께 이나라에 도입된 齒科醫學이 거처온 變轉의 발자취 또한 평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천의 역정이 8.15 이후로는 퇴각과 停滯의 역사가 아니라 향상

일로를 지향하는 발전의 역사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기쁨을 간직하면서 8.15의 열네돌을 맞이하는 바이다.

△ △ △ △ △

筆者 金永昌 1917년 서울 태생

경성 제1고보(현 경기고)를 거쳐 1942년 경성치전졸업, 1958년에 의학박사학위를 받고 1958년 7월 서울대치대 학장으로 취임, 1976년 서울대치대 해부학교수로 계시다가 조선대 치대 학장 취임.

경 신 치 과 기 공 소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317번지

전화 53-5649, 52-3740

東一齒科材料商會
TEL (96) 8519